

展示衣裳에 活用된 韓國的 이미지의 外的形式에 대한 實態調査

辛明眞* · 南潤淑

新羅大學校 大學院 博士課程*, 新羅大學校 패션産業學部 教授

Research on the External form of Korean images used in Exhibition clothing

Shin, Myung-Jin* · Nam, Yoon-Sook

Dr. course, Dept. Clothing &Textile, Silla University*
Professor, Major in Fashion Design, Division of Fashion Industry, Silla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designs of exhibition clothing in terms of the use of Korean image, to review objectively contents about the use of traditional image, understand external elements of works, and give directions and basic data for future works.

This study selected the total 250 works as the subject of this study among the collected data. This study classified and examined the use of Korean image found in exhibition clothing according to period, item, line and form, material, technique of expression and accessory between 1996 and 2004.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1) The most artworks were comprised in adaptation were Choson costume. (2) Most of them were clothing works for female. The item of chima were the most preferred in use. (3) The straight lines are used more frequently than curved lines. Forms of skirts were applied to those of silhouettes, H and A form were common. (4) In terms of materials, traditional materials such as silk, linen and cotton were commonly used. (5) Geometric patterns and plant pattern were found more often than others. (6) In terms of techniques of expression, patchwork was most frequent, quilting, embroidery and pleating were ranked second, third and fourth. (7) In accessories and other item, gorom were most common and norigae were ranked second. (8) As Korean image has been expressed by fine parts of traditional costumes, the traditional living item, and local symbols, the range of works are becoming wider.

Key Words : Korean image(한국적 이미지), exhibition(전시), external form(외적 형식), design inspiration (디자인 영감)

1.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모든 인간의 창조 활동은 외적 형식, 외형적 요소를 통해 인간의 내적 정신세계, 내적 형식에 대한 의미를 표출한다.¹⁾ 전시의상은 의상의 주목적인 '착용'보다는 '전시', 즉 '보여주기 위한 의상'으로 작가의 주제의식에 따라 다양한 주제와 분야로 표현되어진다. 따라서 의상 전시회를 통해 보여지는 작품들은 작가의 고유의 경험, 철학, 사상, 감정이 의상에 표출되어²⁾ 있기 때문에 한국적 이미지를 표현하고자한 작품의 외형적 요소를 분석하고 내재적 의미를 찾는 것은 한국적 미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전시의상의 발달은 1984년 10월에 열린 <국민대 조형전>을 시작으로, 이듬해 <미국의 미술의상전>이 롯데백화점에서 개최되었고, 이후 각 대학의 졸업전시회와 같은 행사 등을 통해 점차 예술의상³⁾적 경향을 지닌 작품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의상도 예술적 작품이 될 수 있음을 인식시킨 것은 한국 섬유비엔날레회원들에 의해 개최된 '미술의상전(1998)으로 이후 이러한 유의 의상전시가 다수 개최되고⁴⁾, 1996년에는 패션디자이너들과 의상학과 교수들이 모여 한국예술의상협회를 창립하였다.⁵⁾ 이들의 활동을 필두로 현재에는 관련단체 및 학회에서 주관하는 의상 전시회를 중심으로 작품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시의상의 작가는 80년대 후반에는 섬유예술가와 의상디자이너가 중심이 되었으나 이후에는 의상디자이너와 학계의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들 작가들이 작품을 통해 시도한 한국적 이미지의 활용은 한국적 디자인의 정체성을 갖게 하고 나아가 세계 속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동시에 패션계에 있어

'한국적인 디자인'의 발전과 자취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적 이미지의 활용에 있어 조형예술의 한 분야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전시의상 작품을 대상으로 디자인 분석을 함으로써 전통이미지 활용에 대한 선형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작품에 나타난 외형적 요소를 파악하여 앞으로의 의상 작품제작을 위한 방향설정 및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적 이미지의 발상에 폭과 깊이를 더해 주고, 현행 전시의상에서 한국적 이미지 제고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한국적 이미지의 정립에 기여하는데 의의를 갖는다.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1996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 작가들에 의해 개최된 국내외의 의상전시회 도록에 게재된 작품 중 총 250개의 작품을 선정하여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료화한 도록은 의류 관련 학회 및 협회가 주관한 의상전시회의 도록을 위주로 하였다.<표1>

분석대상이 되는 작품은 한국적 이미지를 활용한 작품이라는 판단의 객관성을 위해 작가의 의도가 담긴 설명이나 제목을 최우선하였고, 부차적으로 패션 전공 교수 및 대학원 박사과정 이상의 전공자 4인이 함께 논의하여 작품을 선정하였다. 고중복식과 문화상품에서의 의상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표 1> 전시도록 및 분석

주관	전시명	분석 작품수	장소(연도)
한국패션문화협회 (전, 한국예술 의상협회)	KAWA	4	서울(1996)
	FASHION ART	6	대구(1998)
	FASHION ART EXHIBITION	3	서울(1999)
	FASHION SCULPTURE	2	서울(1999)
	FASHION ART-함오는 날	13	서울(2000)
	FASHION ART FROM KOREA	12	뉴욕, 오하이오, LA(2001)
	FASHION ART-잔치날	11	서울(2001)
	태극2002 FASHION ART EXHIBITION	20	서울(2002)
	FASHION ART FROM KOREA	4	비엔나(2003)
	FASHION ART	1	서울(2003)
한국복식학회	한국복식학회 초대의상전 COSTUME EXHIBITION	6	서울(1997)
	KOSCO	13	서울(1998)
	INTERNATIONAL COSTUME EXHIBITION (ICC)	45	서울(2001-2004)
		46	파리(2001) 서울(2002-2004)
	2002 월드컵기념 의상전	8	제주(2004) 서울(2002)
한국의류산업학회	한국의상교수초대전	55	도쿄(2003) 피렌체(2003) 뉴델리(2004) 프라하(2004)
예술의 전당	패션아트전	1	서울
계		250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로서 선행연구에 나타난 한국적 이미지의 활용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록에 나와 있는 작품들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전시의상에서의 한국적 이미지의 활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각 작품은 표현대상에 따라 시대, 품목, 선, 형태, 소재, 문양, 장신구와 기타 아이템 등으로 구분하여 빈도수와 백분율로 표시하였는데, 한 작품에 여러 요소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중복분석이 불가피하였다. 색채에 관해서는 원형사진을 편집하거나 재연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쇄 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제한점을 감안하여 본 조사에서는 생략하였다.

II. 한국적 이미지의 활용에 대한 이론적 고찰

복식에서 한국적 디자인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선행연구를 통해 본 전체적인 맥락은 한국적 디자인의 형식적인 면과 내용적인 면으로 나누어 연구되어지고 있는데, 형식적인 면은 외적 형식으로서 주로 선과 형태, 색채, 소재, 문양, 장신구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되어지고, 내용적인 면은 그 속에 내재된 조형의지와 미의식, 미적가치를 중심으로 연구되어지고 있었다.

금기숙⁶⁾(1992)은 한국복식미의 현대적 활용사례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곡선이 주로 사용되었고, 전통적 소재인 모시, 삼베, 목면이 이용되었으며, 문양은 자연문, 기하학문이 주로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문양의 표현방법은 아플리케와 퀼팅, 자수, 염색기법이 활용되었다고 하였다.

최세완과 김민자⁷⁾(1993)는 1980년대 이후의 국내 월간지와 섬유패션 디자인 경진대회 작품집에서 한국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는 작품을 수집하여 한국복식의 조형미에 관해 분석하였는데, 형태면에서는 H형 실루엣이 많았고, 직선이 곡선에 비해 많이 사용되었으며, 소재는 모시가 가장 많이 이용되었다고 하였다. 문양은 자연적 모티브와 인위적 모티브가 비슷하게 응용되어 활용되었다고 하였다.

김인경(1995)⁸⁾은 한국패션디자이너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적 디자인의 미적특성을 외형적/내면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면서 외형적 요인에는 전통복식의 실루엣이나 건축, 도자기 등의 선을 이용하여 한국적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으며, 소재는 주로 견, 마, 면이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파리컬렉션에서 보여진 한국디자이너의 작품 속에서 한국적 디자인의 특성에 대한 그의 논문⁹⁾에서는 한국패션의 이미지 구축을 강조할 경우에는 전통적 고유형태의 실루엣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였고 그 외에는 대부분 서구복식 형태를 사용하였으며, 조형적 특징은 좌우비대칭이거나 가변적 형태로 전체 혹은 일부분에 풍성한 볼륨감을 표현하고, 곡선의 형태는 약간 불규칙이면서 신체의 곡선을 강조하는 만곡선의 형태를 띤다고 하였다. 소재는 견, 마, 면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문양은 누빔이나 상침을 통해 나타내기도 하고 전통 민화나 풍속화의 미인도, 용문양등이 프린트 기법으로 나타났고, 장식적 요소로 한국적 디자인을 표현한 것으로 패랭이, 노리개, 고름 등의 아이템을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금기숙¹⁰⁾(1999)은 1980년대에서 1998년까지 약 20년 동안의 디자이너 컬렉션과 패션잡지, 연구 논문 등을 중심으로 현대 패션에서 전통복식의 활용을 시대, 의복품목, 복식조형 요소, 장신구 및 부속품으로 구분하여 디자인 분석을 하였다. 그 활용의

결과, 시대적으로 보았을 때 상고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조선시대의 이미지 활용이 대부분이었고, 성별로 보았을 때에는 남성복에 비해 여성복이 주로 활용되었다고 하였다. 곡선보다는 직선이 압도적으로 활용되었고, 문양은 전통문양이 많이 사용되었고, 문양의 종류는 기하학적 문양과 화문이 많이 활용되었다고 하였다. 문양의 표현방법은 프린트가 가장 빈번하였고, 자수, 직조의 순이었다. 소재에는 면, 모, 견, 마 등 전형적인 전통 자연소재가 애용되었다고 하였다. 이외에 장신구나 의복의 부속품들이 활용되어 의복에 섬세함과 정교함을 더해 착용자의 품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김찬주와 장인우¹¹⁾(1999)는 1985년부터 1997년까지의 국내 패션잡지와 SFAA 컬렉션 도록, 패션연구소의 인터넷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적인 현대 패션 디자인 전개과정을 선과 형태, 색채, 소재, 문양, 장식기법, 장신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93년을 기점으로 초기와 후기로 설명하였다. 선은 초기에는 곡선을 주로 사용하다가 후기로 갈수록 직선을 주로 사용하며, 형태에 있어서는 한복의 여러 의복 중 치마, 저고리, 바지 형태를 주로 활용하였으나 점차 활용형태가 포, 마고자, 배자 등으로 확대되었다고 하였다. 소재는 전통적인 삼베, 모시, 노방류를 주로 사용하다가 후기로 갈수록 다양화되었으며 장식기법은 선처리와 금은박에서 누빔, 엮기, 자수, 조각보, 흥배 등으로 다양해졌다고 하였다. 무늬는 초기의 기하학적 문양에서 십장생, 수복, 길상, 동식물문 등 한국적 정서를 담은 무늬들을 의복에 표현하려 하였으며, 장신구는 다양한 모자장식과 머리장식, 서민의 생활 속의 고유 장신구를 패션소품으로 활용하였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외적형식의 분석기준을 선과 형태, 소재, 문양, 색채, 장신구의 조형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김찬주, 장인우(1999), 금기숙(1999)은 장식기법을 분석에 추가하였고, 금기숙(1999)은 여기에 의복 품목에 있어서 시대별 분석과 성별의 분석을 추가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적 이미지의 활용은 주로 디자이너의 작품을 위주로 분석이 되었으

며, 선의 사용에 있어 곡선의 미가 특징이나 직선위주의 사용이 많았고, 소재는 전통적 소재위주에서 점점 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문양은 자연문과 기하문, 화문을 중심으로 전통적 문양이 표현되었다. 형태는 주로 조선시대의 복식형태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었으며, 장신구의 사용은 시간이 흐를수록 다양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III. 전시의상에 나타난 한국적 이미지의 외적형식에 대한 분석

1. 한국적 이미지 활용에 관한 분석기준

본 연구에서는 전시의상에 나타난 한국적 이미지의 활용현황을 조사 연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항목을 분석 기준으로 하였다.

- 1) 조사대상의 선정 및 소재의 판단은 도록에 표기된 작가의 작품제작 의도 및 설명을 우선 기준으로 하였고, 작품설명이 없거나 판단기준이 애매한 경우에는 패션 전공 교수 및 대학원 박사과정 이상의 전공자 4인이 함께 논의하여 참고로 하였다.
- 2) 분석의 기준을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시대, 품목, 선과 형태, 소재, 문양, 표현기법, 장신구 및 기타 아이템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3)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중복분석을 하였다. 작품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

문에 각 분석 항목의 총계는 전체작품 수와는 일치하지 않을 경우도 있으며, 분석의 결과는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2. 전시의상에 나타난 한국적 이미지의 현황 분석

1) 시대별 분석

각 작품을 통해 활용된 한국적 이미지를 시대별로 구분해보았다.<표 2> 그 형태에 있어서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작품들이 전체의 70.8%를 차지하였다. 시대별로 구분이 가능한 작품에서는 조선시대의 의복품목의 활용이 2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상고시대가 2.4%, 고려시대가 1.2%로 통일신라시대의 복식은 거의 활용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 아이템과 현대적 디자인의 접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부분별로 활용이 이루어지면서 정확한 시대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역사적으로 유물이나 자료를 통해 많이 접할 수 있는 시대의 품목들이 자주 활용됨을 알 수 있었다.

2) 품목별 분석

한국적 이미지의 활용에 있어 작품의 표현대상을 보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작품(97.2%)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남성을

<표 2> 시대별 분석

종류 \ 연도	'96	'97	'98	'99	'00	'01	'02	'03	'04	빈도(%)
상고시대								4	2	6(2.4)
통일신라										
고려						1		1	1	3(1.2)
조선	1	2	5		4	13	17	11	11	64(25.6)
불명확	3	5	14	5	9	42	25	50	24	177(70.8)
계	4	7	19	5	13	56	42	66	38	250(100)

<표 3> 성별 형태

연도 종류	'96	'97	'98	'99	'00	'01	'02	'03	'04	빈도(%)
여성	4	7	19	5	11	55	39	65	38	243(97.2)
남성					1	1	2	1		5(2)
기타					1		1			2(0.8)
계	4	7	19	5	13	56	42	66	38	250(100)

<표 4> 품목별 분석

연도 종류	'96	'97	'98	'99	'00	'01	'02	'03	'04	빈도(%)
저고리/치마			5	2	1	11	8	13	7	47(26.5)
저고리/바지					1	8		3	2	14(7.9)
저고리						3			3	6(3.4)
치마	2	3	8	3	5	13	6	17	8	73(41.2)
바지							3	1		4(2.3)
배자/조끼					2	3	2	4	5	18(10.2)
마고자							3	1		4(2.3)
포						1	2	2	1	11(6.2)
계	2	3	13	5	9	38	24	40	26	177(100)

대상으로 한 작품이 보여지기는 하지만 미미한 빈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의상전시의 전반적인 현상으로 여성복 위주의 작업이 의상전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이 반영된 것이며, 한편으로 전통 복식에 있어서 여성복의 품목이 남성복보다 많았기 때문에 그 활용도 이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여성을 대상으로 접근하는 시각이 작가들에게 일반적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표 3>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품목에서는 저고리/치마, 저고리/바지의 한 벌의 형태를 갖추는 것과 저고리, 치마, 바지, 배자/조끼, 마고자, 포의 단일 품목들이 디자인에 활용되었다. 치마의 형태를 활용한 디자인이 41.2%였고, 저고리/치마의 한 벌의 형태를 활용한 디자인이 26.5%였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치마의 형태가 67.7%를 차지하

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한국적 이미지의 형태적 활용이 치마에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다. 이는 치마의 형태가 현대화하기에 가장 적합한 아이템임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으며, 다양한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특징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치마, 저고리/치마의 형태에서 다른 형태의 활용이 2000년대 들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단품아이템을 중심으로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치마의 형태는 한국적 이미지 활용에 있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선과 형태

(1) 선

작품에 사용된 선의 형태는 직선과 곡선으로 나

놓 수 있다. 작품에서 보여지는 선은 실루엣의 영향이 가장 크게 인식되어지고, 그 다음이 작품 내부의 선의 모양을 통해 나타났다. 작품은 거의 대부분 고정된 바디에 입혀져 있거나 작가의 의도에 따라 전시되기 때문에 전시의 방법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표 5>

한국 전통복식의 중요한 미적특징 중 하나로 곡선의 미가 자주 언급되고 있지만¹²⁾, 전체적인 빈도를 본다면 직선의 사용이 곡선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9년 이후에는 곡선의 사용보다는 직선의 이미지 활용이 빈번하였는데, 직선의 형태는 한복의 직선적 구성의 이미지에 의한 전체적인 실루엣과 작품 속에서의 디테일선의 모양을 통해 많이 보여졌다.<그림 1> 곡선은 실루엣, 동그레 깃, 배래선, 도련선, 치마를 걸어 올리거나 주름잡아 형태를 변형시키는 과정 등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의상 내부의 디테일에 의해서도 표현되어졌다.<그림 2>

(2) 형태

실루엣의 형태는 H형(46%)이 가장 많았고<그림 3>, 그 다음이 A형(40.6%)이었다.<그림 4>이와 같은 결과는 치마의 형태가 많이 활용되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단순하고 간결한 이미지의 추구하고 상박하후의 전통적 실루엣을 많이 추구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표 6>

전시형태에 따라 실루엣에 영향을 주었는데, 양쪽 또는 한쪽의 소매를 벌려 평면적으로 전시한 경우도 있었고, 바디에 전시하였을 경우에도 작품 디자인 의도에 따라¹³⁾ 소매를 펼쳐 전시하기도 하였다.

실루엣의 분석에서는 한 벌의 형태를 갖춘 작품을 대상으로 하였고, 단품의 형태로 된 작품이나 착용의 상태가 아닌 작품을 펼쳐서 전개시켜 전시한 경우는 실루엣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 무리가 있어 제외하였다.

<표 5> 선의 형태

연도 종류	'96	'97	'98	'99	'00	'01	'02	'03	'04	빈도(%)
직선	2	4	11	4	10	43	19	41	24	158(60.8)
곡선	2	4	12	2	5	16	23	31	17	102(39.2)
계	4	8	23	6	15	59	42	72	41	260(100)



<그림 1> 직선의 활용
이명희, '동방의 빛', 2002¹³⁾



<그림 2> 곡선의 활용
김정희, 'Festival of Innocent Soul', 1998¹⁴⁾

<표 6> 실루엣별 형태

연도 종류	'96	'97	'98	'99	'00	'01	'02	'03	'04	빈도(%)
H형	1	3	8	2	5	27	11	15	14	86(46)
A형	2	2	6	1	3	17	15	23	7	76(40.6)
O형		1	3				4	2	3	13(7)
Y형	1		2	1	2	2	2		1	11(5.9)
X형					1					1(0.5)
계	4	6	19	4	11	46	32	40	25	187(100)



<그림 3> H형 실루엣

이혜영, 'The Air of Tradition II', 2001¹⁵⁾



<그림 4> A형 실루엣

김숙희, 'Taste of Women', 2003¹⁶⁾

4) 소재

소재는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견(47.8%), 마(12.6%), 면(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인 소재 위주의 표현이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견 소재는 전통적으로 의례용이나 고급스러움을 상징하는 것으로 한국적 디자인에 많이 활용되어졌으며, 지속적인 동양풍의 유행도 반영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하다.¹⁷⁾

전통적 소재 이외에 진 소재를 사용하여 한국적 이미지를 표현한 작품도 선보였으며 <그림 5>, 니트를 이용한 작품도 나타났다. <그림 6>

<표 8>은 <표 7>의 기타소재를 세분화한 것으로 일반적인 의복소재 이외의 소재를 분류하였다. 자유로운 작가정신을 다양한 소재를 통해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소재들은



<그림 5> 진소재의 활용

김혜수, 화려한 외출, 2001¹⁸⁾

현대적 소재로서 한국적 이미지를 나타내어 전통적 이미지와 현대적 이미지와의 절충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소재 개발적 측면과 작가의 실험정신을 잘 나타내고 있었다.<그림 7>



<그림 6> 니트소재의 활용
김은정, 'Dong-Dong', 2003¹⁹⁾



<그림 7> 스펀지와 한지의 활용
유영선, 'Traces', 2001²⁰⁾

<표 7> 소재의 종류

종류		연도									빈도(%)
		'96	'97	'98	'99	'00	'01	'02	'03	'04	
견	수직실크		2	7	1	5	13	15	6	3	52(26.1)
	공단양단	1	1	4		1	6		2	4	19(9.6)
	사					1					1(0.5)
	노방		2	5		2	7	1	1	2	20(10.1)
	쉬폰		1	1						1	3(1.5)
면	일반		1	1	1			4		3	10(5)
	진						3	2	1		6(3)
마		1		3	1	1	8		7	4	25(12.6)
모	일반						1	3	1		5(2.5)
	펠트						2				2(1)
	모피		1				1		2	1	5(2.5)
폴리에스터					2			1		1	4(2)
니트				1					3	1	5(2.5)
기타		1	4	7		4	8	8	8	2	42(21.1)
계		3	12	29	5	14	49	34	31	22	199(100)

<표 8> 기타 소재의 종류

종류		연도									빈도(%)
		'96	'97	'98	'99	'00	'01	'02	'03	'04	
종이/한지		1		3		1	1	1	3	1	11(26.1)
비닐						1					1(2.4)
금속							1		2		3(7.1)

<표 8> 계속

연도 종류	'96	'97	'98	'99	'00	'01	'02	'03	'04	빈도(%)
폴리우레탄							1		1	2(4.8)
대나무			2				1			3(7.1)
망사					1		1			2(4.8)
스판글 /비즈		1				4	2	2		9(21.4)
와이어		2	2		1		1	1		7(16.7)
테이프		1								1(2.4)
스펀지						1				1(2.4)
부직포						1	1			2(4.8)
계	1	4	7		4	8	8	8	2	42(100)



<그림 8> 문양의 활용

엄소희, 민화이야기-기다림2000, 2000²²⁾



<그림 9> 문양의 활용

남궁민지, 세화, 2002²³⁾

<표 9> 문양의 종류

연도 종류	'96	'97	'98	'99	'00	'01	'02	'03	'04	빈도(%)
자연문	1			1	2	2	1	4		11(7.3)
동물문			2			2		1		5(3.3)
식물문		1	4	1	2	11	8	16	7	50(33.3)
인공물문							1			1(0.7)
기하문		3	2		3	9	19	12	3	51(34)
복합문						2	1	1	4	8(5.4)
기타문	2	2	4		1	4	1	7	3	24(16)
계	3	6	12	2	8	30	31	41	17	150(100)

5) 문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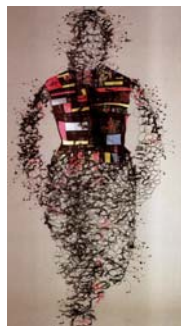
문양은 장수경(1994)²¹⁾이 분류한 한국전통문양의 분류를 따라 구분하였다. 문양은 기하문이 34%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이와 비슷하게 식물문이 많이 나타났다. 다음이 인물의 형태, 문자문을 포함하는 기타문이 16%로 나타났다.<표 9> 2000년 이후로 한국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문양의 출현 빈도도 많아지고 다양해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장식적 요소로 문양의 활용이 증가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그림 8> <그림 9>

6) 표현기법

표현기법은 조각보의 이미지를 표현하면서 패치워크 기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27.1%) <그림 10> 그 다음이 누비(13.5%)로 나타났고, 자수와 주름이 동일한 빈도로 나타났다.<표10> 이러한 기법들은 의복 전체에 사용되거나 부분에 사용되어 장식적 역할을 주로 하는데, 최근에는 문양의 표현방법에 있어서 직접 페인팅을 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프린팅을 통해 독창적인 작품의 이미지를 살리는 방법의 빈도가 점점 많아지

<표 10> 표현기법

종류 \ 연도	'96	'97	'98	'99	'00	'01	'02	'03	'04	빈도(%)
자수		1	1			3	3	5	3	16(9.4)
누비		1	2		1	6	1	7	5	23(13.5)
아플리케					1	2	3	5	2	13(7.6)
주름			5			6	1	8	1	21(9.4)
패치워크 (조각보)	1	1	4	1	3	11	5	11	10	47(27.1)
프린트							2	2	3	7(4.1)
역기		2	2		1	2	1	1		9(5.3)
스모킹			1							1(0.6)
매듭			1		1		1	2		5(2.9)
스텐실			1							1(0.6)
텍			2			3	2	3	2	12(7.1)
금은박			2			6		3	1	12(7.1)
페인팅			1			2		3	1	7(4.1)
펠팅						2				2(1.2)
계	1	5	22	1	7	43	19	50	28	170(100)



<그림 10> 패치워크의 활용
금기숙, 조화, 1997²⁴⁾



<그림 11> 프린트 기법의 활용
박영선, 퓨전 I, 2004²⁵⁾

고 있다. <그림 11> 한국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은 전통적 표현기법 자체를 통해 나타낼 수도 있지만, 현대화된 기법을 통한 한국적 이미지의 표현도 시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전시의 상은 인체 착용이 전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표현기법에 대한 시도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앞으로도 표현기법에 대한 한계성 없는 많은 시도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7) 장신구 및 기타 아이템

장신구와 기타 다른 아이템의 경우 직접 작품에 활용하는 경우와 그 이미지를 작품에 나타내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통적 장신구나 전통적인 아이템은 그 자체가 가지는 상징성만으로도 한국

적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의상과 함께 사용되었을 경우 한국적 이미지를 강화하거나 내포하게 된다. <표 11>을 보면 고름의 형태가 옷의 여밈으로 표현되거나 장식적으로 표현되면서 가장 많이 활용되었고, 다음이 노리개가 많이 사용되었다.<그림 12> 전통의복의 세부 부속품으로 활용되던 아이템의 활용이나 의복이외의 생활용품에서 모티브를 찾아 적용한 작품도 있었으며, <그림 13> <그림 14> 돌하루방과 같은 지역적 상징물을 활용하여 한국적 이미지를 나타낸 작품도 있었다.<그림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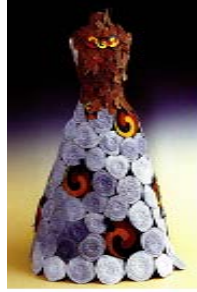
활용의 빈도를 본다면 2000년 이후로 다양화된 시도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새로움을 추구하는 시도로 작가들의 한국적 이미지의 활용에 대한 시각이 넓어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표 11> 장신구 및 기타 아이템

연도 종류	'96	'97	'98	'99	'00	'01	'02	'03	'04	빈도(%)
조바위						1				1(1.2)
아얌									1	1(1.2)
댕기			1					4	1	6(6.8)
족두리			1							1(1.2)
비녀			1							1(1.2)
가리개						1		2	1	4(4.5)
고름			1			2	1	8	2	14(16.1)
토시							1			1(1.2)
주머니						1		1		2(2.3)
세조대					1	1		2	2	6(6.8)
대대			3			1	1	4		9(10.3)
노리개		1	2		3	3	1	3		13(14.9)
버선									1	1(1.2)
술장식					3	1	2		1	7(8)
골무								1		1(1.2)
보/베갯모						3	1	2	1	7(8)
탈				1						1(1.2)
부채							1			1(1.2)
경첩								2		2(2.3)
폐슬						1		3		4(4.5)
숫대								1		1(1.2)
돌하루방									1	1(1.2)
도자기	1							1		2(2.3)
계	1	1	9	1	7	15	8	34	11	87(100)



<그림 12>
고름의 활용
김순분, My Mind & Thought, 2003²⁶⁾



<그림 13>
생활용품의 활용
정연자, 긴인연, 2002²⁷⁾



<그림 14>
생활용품의 활용
이희남, Open Mind, 2003²⁸⁾



<그림 15>
지역적 상징물의 활용
부애진, Jeju Image, 2004²⁹⁾

IV. 결론 및 제언

현대 복식에 있어서 한국적 디자인에 대한 자각이 1980년대 이후에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연구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션의 리더격인 디자이너와 학계의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전시의상을 대상으로 한국적 이미지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1996년에서 2004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전시의상에 나타난 한국적 이미지의 활용을 시대, 품목, 선과 형태, 소재, 문양, 표현기법, 장신구 및 기타 아이템으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시대별로 구분이 가능한 작품에서는 조선시대의 의복품목의 활용이 거의 대부분으로 나타났는데 역사적으로 유물이나 자료를 통해 많이 접할 수 있는 시대의 품목들이 자주 활용되었다.

2. 표현의 대상을 여성으로 한 의상 작품(97.2%)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형태적 활용에 있어 품목별로 보면 치마의 형태를 활용한 디자인(41.2%)과 저고리/치마의 형태를 활용한 디자인(26.5%)이 전체적으로 67.7%를 차지하여 치마의 형태가 가장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었다. 또한 단품 아이템을 중심으로 다양화되는 추세가 2000년 이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3. 선의 사용에 있어서 한국적 이미지는 전체적인 빈도에서 직선의 사용이 곡선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실루엣의 형태는 치마의 형태가 많이 활용되면서 H형(46%)과 A형(40.6%)이 많이 나타났다.

5. 소재는 견(47.8%), 마(12.6%), 면(8%)의 순으로 전통적인 소재 위주의 표현이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진이나 니트를 이용한 작품도 나타났으며 자유로운 작가정신을 다양한 소재를 통해 표현하면서 기존의 의복소재 이외의 소재가 많이 사용되었다. 이는 현대적 소재를 통해 전통적인 한국적 이미지의 표현과 현대적 이미지와의 절충적 역할을 하는데 이용되면서 그 빈도도 더욱 많아지고 소재도 폭도 넓어지고 있었다.

6. 문양은 기하문과 식물문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2000년 이후 문양을 통한 한국적 이미지의 활용 빈도도 많아지고 종류도 다양해졌다.

7. 표현기법은 조각보의 이미지를 표현하면서 패치워크 기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그 다음이 누비, 자수와 주름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법들은 의복 전체에 사용되거나 부분에 사용되어 장식적 역할을 하는데, 최근에는 문양의 표현 방법에 있어서 직접 페인팅을 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한 프린팅의 현대화된 기법을 통한 한국적 이미지의 표현도 가능한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8. 장신구와 기타 다른 아이템의 활용에서는 고름의 형태가 가장 많이 활용되었고, 다음이 노리개가 많이 사용되었다. 전통의복의 세부 부속품으로 활용되던 아이템의 활용이나 의복이외의 생활용품이나 지역적 상징물을 활용하여 한국적 이미지를 나타내면서 작품의 폭이 넓어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통해 볼 때, 외적 형식을 중심으로 본 한국적 이미지의 전시의상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작품의 폭과 깊이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시의상에서의 한국적 디자인의 활용은 다소 소극적인 면이 없지 않았다. 특히 여성을 표현대상으로 한 작품이 많은 점과 치마라는 한정된 품목에 집중된 점은 작품의 다양성을 추구해야하는 작가적 측면에서도 한번 더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조형예술의 한 분야로서 의상을 보는 시각에서는 이러한 편향된 작품 활동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표현의 한계가 없는 예술작품으로서 한국적 이미지를 의상에 활용한다는 것은 관람자에게 새롭고 앞서나가는 진보적 이미지의 추구하고 동시에 동시대적 감흥을 얻을 수 있도록 연구되어지고 제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참고문헌

- 1) 김민자 (2004), “복식미학강의 1”, 교문사, p.95.
- 2) 양취경 (1997), “20세기초 예술의상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0.
- 3) 미술의상, 아트웨어(Art Wear), 의상예술, 패션아트(Fashion Art), 'Wearables', 'Wearable Art', 'Art to Wear', 등의 다양한 용어의 총칭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 4) 1987년과 1988년 2회의 미술 의상전과 1995년, 1997년 광주비엔날레 국제 미술의 상전이 개최되었다.
- 5) 금방란, 박민여 (2002), “미술의상에 표현된 오브제”,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논집*, 6(1), p.92.
- 6) 금기숙 (1992), “한국 전통복식미의 현대적 활용”, *복식*, 19, pp. 29-40.
- 7) 최세완, 김민자(1993), “현대패션에 표현된 한국복식의 전통미”, *한국의류학회지*, 17(1), pp. 103-117.
- 8) 김인경 (1995),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9(3), pp.536-547.
- 9) 김인경(1998), “파리컬렉션에 나타난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38, pp. 233-243.
- 10) 금기숙 (1999), “패션디자인을 위한 전통복식의 활용현황에 관한 연구”, *복식*, 43, pp.69-81.
- 11) 김찬주, 장인우 (1999), “한국 현대패션에서의 한국적 디자인 전개과정 분석과 세계화를 위한 제안”, *복식*, 48, pp.5-24.
- 12) 금기숙(1999), op.cit. p.76.
- 13) 2002년 월드컵기념 의상전, *한국복식학회*, 2002, p.32.
- 14) ICA, *한국복식학회*, 1998, p.104.
- 15) KOSCO, *한국복식학회*, 2001, p.38.
- 16) 한국의상교수초대전, *한국의류산업학회*, 2003.
- 17) 이은령, 배주원, 이경희(2004), “Japanism을 반영한 패션 디자인 전개에 관한 비교 연구”, *복식*, 54(2), p.40.
- 18) FASHIONART 잔치날, *한국패션문화협회*, 2001, p.35.
- 19) ICC, *한국복식학회*, 2003, p.22.
- 20) FASHION ART FROM KOREA, *한국패션문화협회*, 2001. p.74.

21) <상위범주의 문양군과 기초범주의 문양>

문양군	문양
자연문	구름, 해, 달, 별, 물결, 돌, 불
동물문	용, 학, 거북, 닭, 물고기, 박쥐, 극락조, 봉황, 나비, 도깨비, 말, 사슴, 원앙, 기린, 호랑이, 꿩, 해태, 토끼, 오리, 개, 기러기, 새, 곤충
식물문	연꽃, 보상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소나무, 모란, 포도, 덩굴, 석류, 풀, 복숭아, 표주박, 버드나무, 수초, 꽃
인공물문	동전, 뿔, 거울, 책, 악기, 도끼, 매듭, 부채, 도자기, 탈
기하문	사각형, 마름모형, 육각형, 삼각형, 원형, 선, 번개, 쉼자, 권자, 바자, 회자, 태극, 팔괘
복합문	심장생, 풍경, 식물+동물
기타문	인물문, 문자

출처: 장수경 (1994), “한국 전통문양의 유형에 따른 분류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2(2), p.289.

- 22) FASHIONART 함 오는 날, *한국패션문화협회*, 2000, p.52.
- 23) 2002년 월드컵기념 의상전, *한국복식학회*, 2002, p.62.
- 24) 한국복식학회 초대이상전, *한국복식학회*, 1997, p.59.
- 25) KOSCO, *한국복식학회*, 2004, p.51.
- 26) 한국의상교수초대전, *한국의류산업학회*, 2003
- 27) 태극2002, *한국패션문화협회*, 2002, p.63
- 28) ICC, *한국복식학회*, 2003, p.66.
- 29) ICC, *한국복식학회*, 2004, p.48.
- 30) 김인경(1995),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9(3). pp.563-547.
- 31) 양리나, 최나영 (1997), “국내 디자이너들의 작품에 표현된 한국적 패션디자인에 관한연구”, *배재대 논문집*, 2. pp. 413-425.

(2005년 8월 18일 접수, 2005년 11월 9일 채택)